

동영상 제작
라디오 DJ
사진작가 되기

미디어센터로 오세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열린미디어실에서 동영상 제작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최근 평균 연령 60세 이상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 미디어 봉사단원 34명 전원이 디지털 영상편집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를 모았다. 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촬영 제작 교육을 받은 이들은 미디어교육, 영상기록 등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부단장인 박종익(64)씨는 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촬영한 영화로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늦깎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기도 했다.

'거침없이 동영상' - 콘티작성에서 영상편집까지 배워
'나도 사진작가' - 디카 이용한 기초사진촬영 강좌
'배우는 라디오' - 원고작성·음악 녹음·편집 등 전 과정

영범과 프리미어를 활용한 영상편집까지 제작 전반을 배우게 된다.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간단한 영상물을 만들게 된다. 4월11~26일 오후 1~4시에 진행되는 강좌와 5월11~22일, 27, 29일 열리는 강좌가 있다. '나도 사진작가'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기초사진촬영 강좌다. 카메라 잡는 방법, 렌즈별 특성, 조리개·셔터속도 등 이론 강좌를 시작으로 인물사진, 풍경사진, 스냅사진 촬영하기 등 강좌로 이어진다. 또 아웃포커싱, 팬포커싱, 하이앵글, 아이앵글 등 다양한 카메라 촬영 기법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주제를 정해 찍은 사진을 수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강좌는 오는 23~27일 3월 강좌, 4월20~24일 4월 강좌가 진행되고, 5월 강좌는 21일부터 열린다. '영상제작 아카데미'는 '거침없이 동영상' 수료자 또는 영상제작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과정이다. 모두 1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정은 수강생들이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 동영상편집 프

로그램 등을 활용해 내레이션 등을 녹음하고 다양한 효과를 영상에 더해 창작영상물을 완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창작영상물은 방송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모에 출품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수료자들은 미디어센터 영상제작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4월6일부터 강좌가 진행된다. 영상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라디오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라디오 DJ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라디오제작 입문과정인 '배우는 라디오'(5월11~15일)에 참여하면 된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에 따른 기획과 구성, 원고 작성법을 배워보고 각종 음악을 녹음 편집하는 등 라디오제작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이밖에 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특화한 '어르신 영상만들기 기초' 교육도 개설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omc-gj.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650-03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광주·전남 강진아트홀 등 9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합회 등이 추진하는 2015년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작이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력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시의 창작·유통 창작·유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가 추진하는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중 하나다. 80억 규모로 진행된 올해 사업의 경우 공연과 함께 처음으로 전시 분야 지원을 시작했으며 소외계층 의무초청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모두 72개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이 중 광주·전남 지역은 모두 9개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전시 분야의 경우 광주서구문화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사람들', 강진 강진아트홀의 '다산과 영랑을 품으며...', 담양군의 '작가와 소통하는 우리 문화기획전'이 뽑혔다. 공연 분야에서는 광주문예회관의 창작발레 '백설공주', 해남문예회관의 '2015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 축제', 장흥문화예술회관 '뮤지컬 머느리 바위', 송달문화예술회관의 '국악뮤지컬 파랑새', 담양군의 '뮤지컬 전우치', 강진아트홀의 '신명마당-풍물과 연극의 만남'이 선정됐다. 한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조만간 민간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진아트홀 전경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새봄 문학으로 하나되는 시간

작가들이 새봄을 맞아 문학을 매개로 하나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전용호)는 오는 25일(오후 7시) 남구 봉선동 산파라돌리에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모임은 최근 작품을 출간한 신석현 '정남진'(장편소설), 박신영 '어떤 일말'(산문집), 전용호 '천개의 소원'(장편동화) 회원들과 문예연구 작가상을 수상한 신동규 회원을 축하하기 위한 자

리다. 또한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서용자, 이연호 소설가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서용자와 작가는 장편 '열하나 조각립' 등을 펴냈고 이연호 작가는 2015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고(故)주동후 소설가 문학비 건립 추진상황 보고와 동인지 발간 일정 공지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 skynew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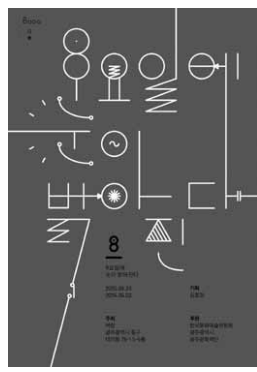
문화공간 '바림' 레지던시 참여 작가 모집

장·단기 프로젝트 진행

문화공간 바림(Barim·동구 대의동)이 오는 31일까지 장·단기 레지던시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 바림은 올해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하는 장기(2개월) 프로젝트와 단기 프로젝

트 등 모두 3개를 진행한다. 오는 4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8요일엔 눈이 밝아진다'는 8일의 시간 동안 작업과 숙박,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참여 작가들은 새 작업, 진행 또는 완성된 작품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작업

의 단서, 과정, 결과 등을 5월2일 발표하면 된다. 대상은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팀으로 분야는 미술 전 장르다. 오는 7월5~19일에는 이동석 영화감독이 기획하는 '고시원 영상(영화)제' 프로젝트가 오는 5월4일부터 7월4일까지는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하는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062-228-987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모틱 협동조합 '광주 얼마나 걸었니' 기획 단원 모집

아모틱 협동조합이 오는 23일까지 본격 춘추여행 기획 프로그램 '제2기 광주 얼마나 걸었니' 기획 단원을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서로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을 함께하는 여행기획 프로그램이다. 함께 여행을 기획하고 싶은 춘추이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신청 사이트(http://goo.gl/forms/0gHMxMoZ46)로 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6~28일 면접이 진행되며 최종 단원으로 선정되면 매달 2만원의 참여비를 내면 된다. 문의 010-8738-177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2015 Korean People's Encyclopedia. It features a large blue and white graphic with the text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Below the graphic, there are details about the book's content, including the number of profiles (27,000) and the publisher (Yonhap News). A stack of the encyclopedia books is shown on the right side of the advertisement.